

# “비선 실세 권력형 비리...국조·특검으로 낱낱이 밝혀야”

## 2野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 총공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이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관련 의혹에 대해 공세를 강화하고 나섰다.

특히 야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고(故) 최태민 목사의 딸이자 정윤희 전 보좌관의 전처 최순실씨를 부각시키며 이번 사건을 ‘권력형 비리’로 몰아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호 원내대표는 21일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며 “박근혜정부 들어 이렇게 할 권력형 비리가 눈에 띄지 않고 ‘개인 비리·일탈’, ‘소수에 의한 국정 운영 전횡’이 문제였는데, 이번 사건은 권력 비선 실세에 관한 문제로 시작해 대기업들의 거액 자금 출연, 불투명한 재단 운영 등을 종합해 볼 때 권력형 비리라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최순실씨를 언급하며 “대통령과 특수 관계인 최 씨와, 최 씨의 특수관계인에 의해 설립된 재단 허가 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어떻게 하루 만에 재단 설립을 (허가)해줄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또 “이어서 대기업의 ‘물지마 출연’이 이어진다”며 “800억 원이 넘는 돈이 ‘자발적(모금)’이라고 하는데 과연 가능할까”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더민주 소속 국회 상임위원회 간사단은 이날 원내대표 주재로 비공개회의를 하고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설립 및 기부금 모금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을 국감에서 집중할 현안으로 제시하면서, 진상 규명을 위해 당내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 원내대표는 소관 상임위원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뿐 아니라 법제사법위원회·운영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등 다른 상임위에서도 적극적으로 공조해 줄 것을 주문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도 같은 날 비대위 회의에서 “터질 것이 터졌다”며 “청와대 안중범 정책조정수석이 개입됐고, 대통령

## 최순실·안중범 개입 의혹 제기

“농어촌 기금 한푼도 안 낸 대기업

800억 자발적 모금...소가 웃을 일”

청와대 “언급 가치 없는 정치공세”

최측근인 최순실씨가 재단 이사장 선임에 관련됐다는 것이 연일 터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두 재단은 정관도 가짜로 만들었고, 특히 K스포츠재단은 이사장 선임도 가짜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이어 “재벌들이 한중 FTA 후속 대책으로 합의된 농어촌 생생기금에 돈 한 푼 내지 않고 있다. 그런데 ‘800억을 자발적으로 냈다’고 얘기하는 것은 소가 웃을 일이다”고 꼬집었다. 나아가 “만약 청와대가 지금까지 발뺌하고 솔직하게 밝히지 않으면 국정조사, 검찰 고발, 특검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압박했다.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도 “청와대의 부인에도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과 모금 과정에 권력이 개입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도 관련 증인을 채택하고자 하는 모든 상임위에서 새누리당과 청와대는 완강히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여권을 겨냥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정확한 근거도 없이 제기하는 부당한 정치공세”라고 일축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재단 모금이나 운영에 권력이 개입됐다고 하면 그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면서 “말도 끝도 없이 모든 것을 권력형 비리로 비화시키려는 부당한 정치공세”라고 반박했다.

또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른바 ‘전지현 트레일러’로 유명세를 탄 윤전주 행정관이 3급 행정관으로 채용되는 과정에 최순실씨가 개입했다는 더민주 조승천 의원의 주장에 대해 “제기된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 언급할 만한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미국 갔다 와서 친해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상호 원내대표(왼쪽부터)와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국민의당 의원석을 찾아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 ‘50대 기수론’ 50대 잠룡들 대선 향해 뛰다

관훈클럽 토론·강연·인터뷰...

조직·인지도 한계 ‘돌풍’ 미지수

여야 50대 잠룡 그룹이 내년 대통령 선거를 향해 보폭을 넓혀가고 있다.

새누리당에서는 유승민(58) 의원, 남경필(51) 경기지사, 원희룡(52) 제주지사, 오세훈(55) 전 서울시장,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부겸(58) 의원, 안희정(52) 충남지사는 대선 판도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기 위해 최근 활동 반경을 넓히고 있다. 하지만, 당 내의 조직과 세력, 인지도 면에서 부족한 부분이 많아 바람을 일으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우선 남경필·원희룡·안희정 지사가 비슷한 시기 중견 언론인 모임인 ‘관훈 클럽’의 토론회 요청에 모두 응했다. 순서대로 21일, 22일, 27일 나온. 이와 함께 2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재단법인 ‘여시재’ 출범 기자간담회에 남·원·안 지사와 김부겸 의원까지 50대 후보가 대거 참석할 예정이다. 이 단체는 민간 싱크 탱크이지만 이현재 전 경제부총리가 이사장을 맡고 이광재 전 강원지사 등 진보와 보수를 망라하는 인물들이 모임이어서 이른바 ‘제3지대’가 될 수도 있다. 당 내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유승민 의원은 4·13 총선 이후 한동안 이어갔

던 정치적 침묵을 깨고 이달 초 대학에서 강연한 데 이어 최근에는 각종 언론 인터뷰에 적극적으로 응하고 있으며, 김부겸 의원 역시 문 전 대표를 겨냥해 대세론을 비판함으로써 존재감을 알리고 있다.

최근 ‘공생 연구소’를 설립한 오 전 시장도 20일 상명대에서 강연을 하며 총선 낙선과 8·9 전당대회에서 비박(비박근혜)계 후보를 지지한 후 좁아진 정치적 입지를 넓히는 데 주력 중이다. 그러나 이들이 결국은 한계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있다. 광역단체장이 중앙 언론의 조명을 받기 어려운 자리인 데다 당내에 공고히 구축한 세력도 없기 때문이다. /박지경기자 jkpark@

## 세월호 특조위 연장 법안 상정 또 무산

농해수위 새누리 위원들 반대

새누리당의 반대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기한을 연장하는 법안의 상임위 상정이 또 무산됐다.

21일 오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야당 위원들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을 상정하려 했으나, 새누리당 측 위원 9명 전원일 안전조정위원회 회부 요구서를 제출했다.

현행 국회법은 상임위 재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해당 안전을 안전조정위에 회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전조정위는 넘겨받은 안전을 최장 90일 동안 심의할 수 있다. 세월호특조위는 이달 말 해산을 앞둔 상황이라서 안전조정에 들어간다면 개정안의 의미가 없어진다.

야당은 세월호특조위 연장안을 총 3건 발의한 상

태다. 그러나 지난 6일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은 더민주 위성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 대해 안전조정 회부를 이용해 상정을 저지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 더민주 간사인 이계호 의원은 “안전조정 이후 90일 동안 처리 보류되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안이 돼 버린다”며 “세월호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정말 간절히 바라는 국민들의 뜨거운 열망을 생각할 때 서글픈 일”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간사인 김태흠 의원은 “특조위에 기간 연장을 통해 맡기는 것보다 선제 인양 후 새로운 전문가들과 유가족을 참여시키고 필요하다면 객관성 담보를 위해 특조위 활동했던 분을 참여시켜서 선제 인양에 대해 정밀조사를 하는 새로운 조사단을 우리 국회에 꾸려서 마무리 짓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더민주·정의당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 공동 제출 국민의당은 불참 의원 자유투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21일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공동 제출했다. 애초 참여하기로 했던 국민의당은 막판 논의 끝에 불참했다.

더민주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국민의당의 경우 자유투표를 하기로 했다는 지도부의 연락이 있었다”며 “어제 더민주 의총에서 결정한 대로 두 야당만 해임건의안을 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더민주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의당 추혜선 의원이 두 당의 대표 자격으로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해임건의안을 전달했다.

야 3당 원내대표는 지난 5일 소관 상임위원회의 ‘부적격’ 의견에도 박근혜 대통령이 김 장관 임명을 강행하자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국민의당은 일부 의원들이 지나친 처사라고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해임안 공동제출 여부에 대한 입장을 확정 짓지 못했다. 결국, 국민의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해임건의안을 공동 제출하지 않고 표결 역시 자유투표를 하는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더민주와 정의당이 이날 제출한 해임건의안은 22일 본회의에서 보고되고, 23일 본회의에서 표결

에 부쳐질 전망이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 통과를 위해서는 재적위원의 과반인 15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현재 정당별 의원 숫자는 더민주 소속 의원은 현재 121명, 국민의당 38명, 정의당이 6명, 무소속 6명이다. 더민주와 정의당 의원이 모두 본회의에 참석해 해임건의안에 찬성한다면 가졌을 때, 해임건의안 통과를 위해서는 자유투표를 하는 국민의당 의원 및 무소속 의원 44명 중 23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TAEYOUNG 21 HOSPITAL

**태영21 병원**

**인공신장센터** **오픈**

9월 1일

홈페이지 | www.ty21-endo.com

상담전화 | 진료 및 검진예약  
**(062)362-0075**

신장실 | 직통  
**070-4165-7573**

광주신세계백화점 건너편(국민은행 2F)

운암동

광천사거리

광주선변로

유스퀘어 터미널

신세계 백화점

**태영21병원**

백운동

http://www.greenmed.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160511-중-30812호

**자연그린한방병원**

한의학 최희석·정행진·김 신 원장

**암수술 이후 재발예방**

보이는 것이 진부가 아닙니다.  
보다 세밀한 진단과  
보다 올바른 치료가 필요합니다.

암, 난임, 성장장애, 비만  
피부질환, 근골격계질환

**자연그린한방병원** 대표전화 **(062)952-3366**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암로 392(월곡2동 679-3)